



태반(자하거) 요법

- 자하거의 효능 -

- 入門
- 得效
- 正傳
- 本草
- 回春
- 丹心

인류를 비롯한 포유동물은 태반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얻는다.

태반은 여성이 임신하였을 때 자궁벽에 발생하는 장기이다.

혈관조직이 풍부한 원반형의 물질인 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영양 섭취와 호흡과 배설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태반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각종의 물질을 태아에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수많은 면역체도 함유되어 있다.

출산을 마치면 태반은 그 역할을 마치고 후산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출산 후 배출된 태반을 그 자리에서 먹어버린다. 본능적으로 태반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분만 직후 태반을 먹은 동물들이 여러 마리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잘 길러내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태반에는 생명력의 근본이 되는 대단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용서

소아청소년전문 학습증진클리닉
전곡한의원 원장
www.youthclinic.co.kr



사람이나 소와 같은 대표적인 포유동물의 태아는 수정된 후 약 10개월 동안 16억 수천만 배라는 놀라운 성장을 한다고 하니 태반의 효능은 진정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다. 인간이 태반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마 종교적, 도덕적 측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태반은 그 신비한 효능으로 인해 옛 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에 의해 연구와 실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태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체에 다시 돌려보내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유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태반 요법이다.

이 태반 요법은 동양식과 서양식으로 대별된다. 동양식은 중국의 한방을 기반으로 하는데 태반 자체를 섭취하는 요법이라 할 수 있다. 한방에는 오래 전부터 ‘동류(同類)는 동류(同類)로써 치유 한다’라는 말이 있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컨대 간질환에는 간이, 신장에는 신장이 바람직한 약이라는 발상으로 볼 수 있겠다. 태반 요법도 그런 발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태반에는 본래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체내에 되돌려 줌으로써 상실된 기능을 소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태반을 적당히 처리하여 당귀와 같이 달여서 마시면 산후에 좋고 특히 모유가 풍부해지며 빈혈 예방 및 부인병 치료에도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하를 호령한 진시황도 ‘비약 중의 비약’이라고 극찬한 태반은 기원전부터 동양 특히 중국에서 자하거(紫河車)라 하여 피로, 기침, 식은 땀, 정력 감퇴, 발기불능 등의 개선제로 이용돼 왔다.

이 자하거를 약재로 사용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동의보감에는 이 자하거가 ‘남자의 정과 여자의 혈이 서로 합해서져 만들어진 것으로 혈약에 들어가면 음을 북돋고, 기약에 들어가면 양을 도와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데 그 효능이 다른 약과 비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자하거는 부인의 포태(胞胎) 즉 태반을 말하는 것으로 혼돈피(混沌皮) 또는 혼원의(混元衣)라고도 하며, 건강한 산모의 태반에서 혈액을 씻어낸 신선한 상태 그대로 불에 살짝 구워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사용하며, 삶으면 성분이 파괴되므로 생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첫 아이 특히 남아의 태반일수록 약효가 좋다고 한다.

약성은 따뜻(溫)하고, 독이 없고, 맛은 단맛과 짠맛이 섞여 있고, 폐와 간·신장의 경락에 주로 작용한다.

자하거는 기를 돋우고 피를 보충하며, 정을 보강하는 작용이 있어서 병이 오래되어 신체가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하거나, 신이 허하여 정이 모자라는 것을 치료한다. 임상에서는 강장약으로 인체의 저항력을 증강시켜 간염·간 경변 등의 간장 질환과 폐결핵·신경쇠약·빈혈·기관지천식 등 만성병에 특효가 있다.

다음은 자하거의 효능에 관한 고전의서의 언급이다.

入門 “자(紫)는 북쪽의 빛이고, 하(河)는 북쪽에 흐르는 물 이름이며, 거(車)는 배태(胚胎)의 99수가 만족하여 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하거가 혈약에 들어가면 음을 보강하고 열을 내리며, 기약에 들어가면 양기가 좋아져 자식을 낳게 되고, 담약에 들어가면 담을 치료하고, 풍약에 들어가면 풍을 다스리며, 심약에 들어가면 경기나 실신 등을 다스리는데, 그 약효가 비상하여 비록 병이 위중하여도 1~2일 만에 회복되니, 대체로 자하거는 남자의 정과 여자의 혈이 합쳐져서 이루는 것이니 여타의 다른 약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得效 “하거란 천지의 시초이고 음양의 조상이며 하늘과 땅의 풀무이고 신선이 되는 테두리다. 태아가 생기려 할 때는 99의 수가 만족해지는데 태아가 그것을 받들고 생겨나므로 ‘하거’라고 하였다.”

正傳 “옛날엔 아들의 태나 딸의 태를 가리지 않았는데, 후세에 와서는 남자에겐 딸의 태, 여자에겐 아들의 태를 보통 쓰고 있다. 아들의 태나 딸의 태 모두 첫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럴 듯한 말이다.” “태를 참대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힘줄과 끼풀을 떼어버린 다음 참대로 만든 등지에 넣고 곁에 종이를 발라 약기운이 새지 않게 하여 약한 불기운에 말린다. 쓸 때에는 하룻밤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약한 불기운에 말려서 써야 한다.”

本草 “자하거는 혈기가 부족해서 몹시 여윈 것과 몸이 허하고 과로로 인한 손상, 얼굴에 기미가 끼고 피부가 검게 되는 것과 내부의 여러 가지 병으로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치료한다.”

回春 “다른 방법은 씻어서 나무로 만든 시루에 넣고 10여 시간 푹 찌서 풀같이 만든 다음 돌절구에 다른 약과 같이 넣고 찼어서 반죽하여 환약으로 만든다.”



丹心

“또 다른 방법은 씻어서 썬 다음 사향 4g과 함께 사기 그릇에 넣고 찌서 고약을 만들어서 쓴다.” 이처럼 태반은 임신 전에는 자궁내막으로서 작용을 하다가 수정란이 착상된 다음에는 태아를 감싸서 보호해주고 영양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위해 아주 다양한 성분을 내포하고 있고, 뛰어난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서양에서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시대(BC. 460~375)에 이미 ‘장기의 병은 그 장기의 투여로써 치유 한다’라는 사고가 존재했다. ‘동류(同類)는 동류(同類)로써 치유 한다’는 한방의 원칙과 대동소이한 대목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서양에서도 오래 전부터 태반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거쳐 태반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 들어서의 일이다.

근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구소련의 휘라트프 박사에 의해서이다. 그는 태반 성분 중 ‘세포활성인자’와 ‘생체자극인자’라는 물질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임상적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1945년 휘라트프는 당시 노벨상에 필적하는 영예인 레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미국이나 서구국가로부터는 고립된 존재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가 만주의과대학에 교수로 근무하던 히에다 겐타로 박사라는 일본의학자가 우연히 휘라트프 박사의 논문을 발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반세기에 걸친 연구 끝에 태반을 이용해 여러 분야의 임상효과가 밝혀지게 되었다.

내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소아과, 정신과, 치과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태반의 면역증강작용이 확인되면서 면역계 질환까지도 치료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원래 태반 제제는 간염, 간경화 그리고 위 십이지관양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엉뚱한(?)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효과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했고 그 결과 태반 제제가 강력한 진통 소염작용, 갱년기 장애와 생리통의 개선효과, 피부미백효과, 노화방지 효과 등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통증을 없애주고 피부재생효과와 젊음이 돌아오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반 요법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탁월한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태반 치료의 강점이다. 